그리고 만들고… 미술관·도서관은 어린이 세상

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 어린이날 체험 프로그램
문예재단 아트페스타 온
서귀포학생문화원도 행사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의 공립 박물관·미술관, 공공 도서관 등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펼친다. 무료 입장으로 문턱을 낮추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이날 전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가족 체험 행사를 연다. 특별 프로그램은 일본 아오모리현과의 국제교류전을 기반으로 계획한 '모두의 나라 요시토모'다.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 속 악동 캐릭터를 채색하는 프로그램으로 당일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참여 기회를 갖는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어린이날 전시장 무료 개방과 함께 '서천꽃밭: 생명의 꽃을 피우다' 주제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 제주 신화 속 '서천꽃밭'을 콘셉트로 오전 10시부터 미술관 야외 조각공원에서 공연·체험이 잇따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 등 3개 공간에서 '어린이날 아트페스타 온(ON)'을 운영한다. 공간별 프로그램을 달리해 클레이 악기 만들어 연주하기 등 각종 만들기 체험을 꾸린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꿈바당 행복놀이터'란 이름으로 도서관 실내외에서 어린이날 프로그램을 풀어놓는다. 버블쇼, 작가와의 만남, 가족 골든벨, 제주어 체험관, 도로 위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시상에서 질로 큰 기림팡' 등이다.

어린이날이 개관 기념일인 도내 기적의도서관 2곳에서도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 제주시기적의도서관은 오전 10시30분부터 '어린이 책 축제'를 벌인다. 서귀포기적의도서관에서는 '책과 사는 아이'란 부제를 달고 어린이날 행사(오전 9~오후 6시)를 개최한다.

탐라도서관은 오는 16일 도서관 강의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콘서트 '이야기와 멜로디가 만나는 순간'을 준비했다. 우당도서관은 오는 9일과 16일 '2026 제주시 올해의 책' 어린이 부문 선정 도서와 연계한 작가 초청 강연을 이어간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어린이날 오전9시30분부터 '온(ALL) 가족 예술 온(ON)' 행사를 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가족 문화 예술 공연'으로 체험·공연 마당이 펼쳐진다.

제주교육박물관에서도 어린이날 기념 문화 행사 '와글와글 물음표 박물관'이 운영된다. 박물관 탐험대, 질문 수장고, 바람 연구소&바람 놀이터, 생각 놀이터 등 4가지 테마 아래 전시와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진선희·김지은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아트페스타 온 이미지

5월 무대 가족극·세대 공감 콘서트

김정문화회관 음악 가족극
서귀포관악단 EQ콘서트
설문대 느영나영 콘서트
서귀포예당은 키즈클래식

5월 가정의 달, 어린이에서 노년층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잇따른다. 가족극, 오페라, 세대 공감 콘서트 등 공공 공연장마다 여러 빛깔의 무대가 준비됐다.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은 오는 9일 오후 3시 '음악가족극'으로 명명한 '간이역 칸타빌레'를 무대에 올린다. 폐쇄를 앞둔 작은 간이역을 배경으로 유기 동물과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창작극이다. 유료(예매 서귀포E티켓).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은 김동원의 지휘로 오는 20일 오전 10시4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미취학 아동을 위한 EQ쑥쑥 콘서트'를 펼친다. 무료. 사전 예약은 4일부터 서귀포E티켓.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5시 4층 공연장에서 '설문대 문화의 날' 5월 기획 공연으로 '두드리멍 노래하멍 느영나영 콘서트'를 연다. 트로트 가수 박군, MC 겸 가수 강석, 소프라노 고지연, 타악 퍼포먼스팀 청명 등이 관객들과 만난다. 유료. 예매(놀티켓, 고객센터)는 6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오는 23일 오후 5시 대극장에서 제주도음악협회와 공동으로 오페라 '마술피리' 하이라이트 공연을 벌인다. 유료. 예매 개시는 7일부터 서귀포 E티켓.

오는 31일 오후 3시에는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키즈클래식'을 선보인다. 유료. 예매는 12일부터.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10월까지 제주목 관아 야간 개장

'귤림야행' 공연·미디어아트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제주목 관아에서 지난 1일부터 야간 개장 프로그램인 '귤림야행'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야간 방문 인원이 7만여 명으로 급증하는 등 관람객이 몰리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야간 개장은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이어진다. 운영 시간은 월·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방문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야간 개장은 2022년 5월과 10월 시범 사업에 이어 2023년부터는 5~10월로 운영 기간이 확대됐다. 야간 개장 방문객은 2022년 8281명, 2023년 2만3458명, 2024년 2만2056명, 2025년 7만561명으로 집계되는 등 3년 사이 8.5배 증가했다.

야간 개장 기간에는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 야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거리 공연 '귤림별곡', 정기 공연 '귤림풍악', 수문장 교대 의식, 미디어아트 전시 등이다. 작년 최다 야간 방문객 기록을 세운 요인으로 미디어아트가 꼽히면서 오는 9~10월 예정된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목 관아가 제주 대표 야간 관광지로 자리 잡아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제주목 관아 야간 개장 공연. 제주도 제공

영화觀 마지막 야구 경기

좋아서 하는 일에는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할 수 있나요?"라는 말에는 여러 의문이 담겨 있다. 좋아함과 일이 충돌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지, 그것이 생활에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과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지.

영화 '마지막 야구 경기'.

방영 중인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주인공 황동만은 20년째 장편 데뷔작을 내놓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영화라는 좋아함을 떠나지 못한다. 그는 이미 데뷔한 동료들의 모임에서 사사건건 분란을 만든다. 눈치도 배려도 없고 돈도 없지만 주눅 들지 않는다. 온몸 여기저기에 미운 털이 박힌 줄도 모르고 그는 타인에 대한 일갈을 멈추지 못한다. 열정과 질투, 간절함과 무기력함이 뒤엉킨 채로 포기할 수 없는 좋아함을 끌어안고 있다. 세상은 늘 일인분의 책임을 요구한다. 어른이 됐으면 허황된 꿈은 접으라 말하지만, 누구도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꿈은 계절처럼 사라지는 것일까. 놓지 못한 꿈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비난은 정당한 행위일까. 사회적 성공에 이르지 못한 이들은 작은 것에서 행운을 발견하고, 숫자로 셀 수 없는 가치를 헤아릴 줄 안다. 승리가 목표가 아닌 이들에게 굳이 돌팔매질을 할 이유를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나는 매일의 가치를 캐내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는 이들을 더 많이 보고 싶다.

카슨 룬드 감독의 영화 '마지막 야구 경기'는 누군가에겐 그저 무용해 보일지 모를 그들만의 꿈의 구장을 보여주는 영화다. 아마추어 야구팀 선수들은 오랜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경기를 이어왔고, 이제는 체력도 기력도 충분하지 못한 중년이 되었지만 열정만큼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야구장이 학교 부지로 선정되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 오랫동안 우리가 밟고 뛰고 소리 지르고 얼싸안았던 곳에서 그들은 마지막 야구 경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마지막 야구 경기'는 어느 가을날 오전부터 밤까지 야구장에 모인 이들의 시간을 지켜보는 영화다. 마지막 경기를 위해 모인 이들에게 승패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노련함 속에서 실책이 이어지고, 누군가는 떠나지만 경기는 계속된다. 해가 지고 관중이 사라져도, 헤드라이트에 의지해 경기를 이어간다. 결국 경기가 끝나고, 조용한 폭죽만이 마지막을 기념한다. 눈물과 얼싸안음 없이 선수들은 오늘의 경기에서 퇴장한다.

'마지막 야구 경기'는 관객에게 기대하지 않은 감정을 전해주는 영화다. 이별의 의식에서 이어질 뭉클한 감동의 순간을 예상했지만 영화는 예상과 달리 담담하게 끝난다. 마지막의 다음을 당연히 기약하는 것처럼.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남는다. 그저 좋아서 하는 일에는 언제나 사랑이 필요한 법이고 사랑이 만든 것은 변색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은 언제나 충분한 도화지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1일차(토)	제주공항 출발(08시 10분) – 광주공항 도착 – 곡성 기차마을 – 중식 –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 슬로우 시티 전주 한옥마을 – 석식 – 호텔
2일차(일)	조식(호텔조식)–선유도 유람선–중식–채석강–광주공항 출발(18시 15분)

출발일 (선착순 마감)	요금 (1인 기준)		포함내역
5월 30일 6월 13, 20, 27일 ＊20인 이상 모객시 출발	2인 1실 기준	489,000원	왕복 항공료, 숙박료, 입장료, 차량료, 조식1회, 중식2회, 석식1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3인 1실 기준	485,000원	
	4인 1실 기준	480,000원	

1일차(토)	제주공항출발(08시10분)–청주공항도착–단종의묘장릉(한반도 지형)–중식–청령포 유배지–석식–호텔
2일차(일)	호텔 조식 후–충주호 유람선(장회나루)–중식–의림지–본초다담(한방족욕+한방차) –청주공항출발(18시55분)–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출발일 (선착순 마감)	요금 (1인 기준)		포함내역
5월 30일 6월 13, 20, 27일 ＊20인 이상 모객시 출발	2인 1실 기준	489,000원	왕복항공료, 숙박료, 입장료, 차량료, 조식1회, 중식2회, 석식1회, 여행자보험
	3인 1실 기준	485,000원	
	4인 1실 기준	480,000원	

Since 1996 제주자유여행사 협찬 | JEJUair 제주항공 문 의 064-744-9111